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 빼거덕

도, 위성곤 지사 공약 따라 추진... 10월 운영 목표
제주시 관내 동참 의사 밝힌 동 지역 1곳도 없어
“안 그래도 쓰레기 넘쳐... 상시 배출 시 감당 못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특정 동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도입해 효과를 검증 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시범 전환인데도 제주시 동 지역마다 상시 배출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최근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제로 전환할 관내 동 지역을 선정해 도에 추천했지만, 제주시는 한 달 넘게 추천을 하지 못했다.

요일별 배출제는 각 가정이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스티로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요일별로 1~3회씩 배출하는 제도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지만 재활용품은 허용된 요일에만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제한된다.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은 위성곤 지사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위 지사는 6·3지방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해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재활용품을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도 환경부서가 제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공약 사업명에서 ‘폐지’를 빼고 ‘배출체계 혁신’으로 용어를 대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방향

을 선회했다. 그렇다고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특정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도입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한편,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해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기본 골격은 유지 한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말 나오는만큼 10월 실시 목표인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따지는 첫번째 시험대였다.

그러나 10월 시범 운영조차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7월 양 행정시와 회의를 열어 제주시 동 지역 1곳, 서귀포시 동 지역 1곳 등 총 2곳에서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서귀포시에 비해 인구와 쓰레기 양이 많은 제주시 동 지역

중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이 단 1곳도 없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최근까지 19개 관내 동 지역 중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 수거 차량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동 지역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단 1곳도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상시 배출제 전환 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이 커지고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던 제주시 A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안 그래도 클린하우스 내 수거함마다 쓰레기가 넘쳐 나는데,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클린하우스 공간도 협소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2면으로 계속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제주관광 이미지 저해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제주관광업계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제공

제주관광업계, 실종신고 허위 종결 관련 기자회견 “온라인 통해 확산하는 허위·조작 정보 관광객 불안 조장... 함께 안전 지킬 것”

제주 관광업계가 경찰의 장모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제주관광의 안전 이미지가 흔들리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관광객의 불안을 조장하고,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인들은 31일 오후 제주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사건을 근거 없이 범죄와 연결하고, 일부 사례나 통계를 왜곡·과장해 제주 전체를 위협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추측은 관광객에게 불안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사업체와 종사자, 나아가 제주 지역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와 관련해서도 관광지라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범죄 발생률만으로는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자 등 제주의 실제 활동인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이러한 통계상의 특성을 이유로 제주관광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관광객의 안전은 그 어떤 관광정책이나 마케팅보다 우선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제주관광의 안전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숙박업과 여행업, 관광지업, 렌터카, 외식업 등 관광객과 직접 만나는 관광사업체와 종사자들이 관광 현장의 위험요소와 이상 징후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월 19일 이후 제주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만 해도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 그러나 8월 들어 감소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18일까지는 0.1%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19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세계유산축전 특별전 개막 3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의 유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나는 전시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3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유산축전 특별기획전 ‘제주의 시간, 세계의 유산으로’를 연다.

이번 전시는 ‘2026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일환으로, 제주가 보유한 유네스코 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늦더위 즐기는 올레꾼들 늦더위가 이어진 31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에서 올레꾼들이 달궀진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허위종결 경찰, 63건 실종시스템 미입력·삭제... 4면 / 국유지에 방치된 염소들, 소유자는 오리무중... 5면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든다 제주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10,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대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집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6. 9. 11. ~ 9. 16.

개회식 | 2026. 9. 11.(금) 18:30 · 제주월드컵경기장

폐회식 | 2026. 9. 16.(수) 15:30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JEJU 2026